

<200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 인사>

사랑의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랑으로 맞이하며, 주님을 진실로 극진히 사랑하는
섭리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으로 맞는 사랑의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못
하고, 먹고 마시고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놀고 즐기고
기뻐하면서 보내기만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삶을 살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성령을 충만하게 해 주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애인이 되고
신부가 되어 주님을 사랑함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기쁨
으로 맞는 자가 되어 그 사랑과 인연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주님을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모시고 살지 못했
을 때는 이맘때가 되면 세상에서 뜻 없이 즐기고, 의미도 없이 그저 세상
을 즐기면서 철없이 살아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뜻을
깨닫는 참으로 위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참된 영원한 가치의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밤에도 사랑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
사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같은 역사
와 감동 감화의 역사가 일어나 사랑과 평화가 충만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육신을 가지고 땅에서 살 때 풀 것을 풀고 살
아야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와 같이 주님을 맞고 사랑과 기쁨으로 살게 됩

니다.

선생도 외롭지 않고 희망차게 크리스마스이브를 보냅니다. 세계 각 나라, 각 교회, 그리고 자연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람들을 쳐다보며 주님과 함께 사랑과 기쁨의 크리스마스를 보냅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같이 기뻐하며 주님을 맞기 바랍니다.

추운데 주님의 역사를 뛰느라 수고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늘 사고와 해됨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기를 바라며, 선생도 늘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밤,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땅에 평화가 가득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니 전해 주라고 하십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예수님과 영원한 인연을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모두 믿음과 사랑과 진리에 굳건하여 어떤 것도 이기며 인생의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세계 각 나라, 각 교회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보는 것에만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주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